나주시,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창구 운영

공인중개협 나주지회 회원 들이 시민봉사과서
매월 둘째·넷째 주 13~17시까지 서비스 제공

나주시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을 위해 청사 시민봉사과에 '무료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창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회장 최두현) 소속 회원들이 직접 나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전·월세 분쟁과 같은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등 부동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다음달 5일까지 위험요소 사전 정비해 안전·쾌적 도로환경 제공

담양군이 내달 5일까지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대상으로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 도로포장, 교량, 비탈면, 풍수해 취약시설 등의 균열과 파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도로포장의 파손, 노면 요철, 포트홀, 맨홀 단차 등 포장면 상태와 교량, 터널 구조물의 손상 및 변형, 도로 절토사면의 낙석·산사태 위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이후 긴급 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실시한 후 자체보수가 가능한 위험구간은 우선 정비하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도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금연지도원 활동 시작…금연시설 집중 계도

1304곳 금연시설 수시 점검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구례군은 금연시설 집중 계도를 위해 금연지도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

금연지도원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1304곳의 금연시설을 점검한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을 지원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교육 3시간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되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금연지도원의 활동으로 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체계화하여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군민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중점으로 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을 위해서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금연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전화는 1544-9030를 통해 가능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전입장려금 주목"… 대폭 개선

장성군이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입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대폭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입자 수 제한'을 없앤 점이다. 장성군 전입자 1인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입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0만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전입신고 즉시 신청해 바로 배부… "주민 불편 최소화"

이전까지는 세대 당 최대 30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군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전입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장려금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전입 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만 전입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도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대기 기간 없이 전입신고를 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입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전입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결혼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車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30대 모집

화순군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 차량은 화순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30대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감축률은 최대 40% 이상, 감축량은 4000km 이상을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작은 실천으로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혜택은 누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바랐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부군수 전담관 지정

곡성군이 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 건의를 신속하게 중앙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지정했으며, 매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을 안내한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

2월에는 올 들어 첫 번째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관내 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대상 업체들은 현지 방문 시 적극적으로 규제 등과 관련한 11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중 법령과 관련된 제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신고센터와 운영과 더불어'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네거티브 규제, 테마규제, 지역기업 규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규제애로에 대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방침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 균 〈도문대작〉